

'33년 독재' 살레 예멘 대통령 물러난다

권력이양안 서명... 90일 내 새 대통령 선출

'아랍의 봄' 영향 4번째 권좌 퇴진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국내외의 사퇴 압박에 굴복, 33년간 장기 독점한 권좌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1월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지 10개월 만에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4번째 국가 수반이 됐다.

살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나이프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퇴진을 규정한 권력이양안에 서명했다고 아랍권 위성채널 알자지라가 전했다.

예멘 아랍 대표들은 살레 대통령에 이어 권력이양안에 서명했다.

살레 대통령은 서명식 자리에서 "지난 10개월간의 불화는 문화와 발전, 정치 등 예멘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결코협력이사회(GCC)의 중재안을 토대로 예멘 여-야가 합의한 이번 권력이양안에 따라 살레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압둘라 라부 만수르 하디 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

하디 부통령은 야당 중심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해 90일 안에 대선을

치르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다만 살레 대통령은 차기 대신 이전까지 명목상의 대통령직은 유지하게 된다.

권력이양안에는 2년의 과도 기간을 갖고 국민대회를 통해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부터 예멘을 방문한 자말 빈 오마르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미

국과 유럽 외교관들의 지원 아래 집권당과 야당을 중재해 전일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된 권력이양안은 그러나 시위대가 반대하는 살레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이날도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살레의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서명식 직후 예멘 시위대는 반정부 시위의 거점인 사나 변화의 광장에서

이날 서명된 권력이양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예멘에서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래 최근까지 정부군의 강경 진압으로 1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살레 대통령은 그동안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동시에 GCC 중재안 서명 약속을 3차례나 반복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살레 대통령이 권력이양안에 서명한 뒤 미국 뉴욕을 방문해 신병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나이프 왕세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퇴진을 규정한 권력이양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권 조정 반발 집단행동

수사 전담 보직 반납 운동 급속 확산

시행령 수정·법개정 추진 의원 설득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10만 일선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행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했다면서 더 강력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시행령을 뒤엎어야 한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의회 통한 형소법 개정·대통령령 수정 촉구=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실제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이제는 (대통령령 등 시행령보다) 법률을 통해 수사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경찰 수뇌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축 입장을 변호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고 국회의원 및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참가하는 경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해경찰서의 한 경장급 경찰관은 이날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에 반발해 수사 결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며 인증 사진과 함께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포털 다음에 강력범죄수사카페인 '범죄사냥꾼(cafe.daum.net/tankcop)'을 운영 중인 중부경찰서 이모 경감도 이날 오전 수사 결과 포기서를 제출하고 카페를 폐쇄하겠다고 공지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3만5000명 경찰 카페 폐쇄="수사결과 포기" 확산=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형사 경과(분과)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 결과 반납 운동을, 수사 결과가 아닌 사람들은 수사 결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인증사진을 글과 함께 적어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

"공지영 '손학규 비하' 트윗 해명해야"

민주당 촉구

소설가 공지영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 관련 소문을 재전송하고 직접 비난성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민주당이 유감을 표명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씨가 중요한 사안을 사실 확인도 없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재전송함으로써 허위 내용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알려져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22일 트위터 상에 올린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계획을 미리 알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최종협상 결정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재전송했다.

공씨는 또 손 대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한나라당서 파견 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들은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항의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 기관 관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민주당 최중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최루탄 김선동' 법적 조치 검토

국회 사무처

국회 사무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항의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대 국회 대변인은 23일 "국회 사무처가 이번 최루탄 사태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관련 부서가 해당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내부에서는 형법상 '국

北 '청와대 불바다' 위협

연평훈련 맹비난

북한은 24일 우리 군(軍)이 전날 연평도 포격도발 1년을 맞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겨냥, '청와대 불바다'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2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우리 군의 훈련에 '서울 불바다'를 종종 언급했지만 '청와대 불바다'란 용어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23일 오후 1

시부터 조선 서해 5개 섬 지역과 그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전쟁연습 소동을 벌이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만단의 결전 진입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만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고 신성한 영해, 영공, 영토에 단 한발 총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타변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전문위원·입법정책관 공모

광주시의회가 조만간 환경복지 전문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을 공모한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별정 4급의 환경복지 전문위원이 12월 정년퇴직함에 따라 후임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후임은 별정 4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예산심의와 입법화, 정책 연구 등을 보좌하는 입법정책실 업무를 총괄할 입법정책담당관도 내달 공모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입법정책담당관도 계약직 가급(4급 상당) 대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4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일시에 채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역대 시의회가 공모로 채용했던 공무원 중 직급이 가장 높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시 총무과에 다음 달 채용을 의뢰하고, 시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채용 의뢰가 접수되면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된 면접위원 3명을 구성해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2 학년도

고구려대학 수시2차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11년 10월 10일(월) - 12월 2일(금)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를 여는 교육중점대학이 되겠습니다.




전문인육성 교육중점대학
고구려대학
www.kgcr.ac.kr

계열	학 과	계열	학 과
보 건	치위생과★	복 지	사회복지과(주/야)
	한약요양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주/야)
	보건의료행정과※		다문화복지과(주/야)
	뷰티미용과		보건복지과(주/야)
	토목조경학부		아동노인복지과(주/야)
공 업	신재생에너지과※	웰빙푸드	커피초콜릿학부
	유아교육과★		초콜릿티어 전공
	사회체육과		망고식스 디저트 카페과※
인 문 사 회	경찰부사관학부※	자율전공학부※	경찰행정전공
	항공관광학부		부사관전공
	공연예술치료학부		항공운항전공
			호텔관광전공

★ 3년제 학과 ※ 2012학년도 신설학과

인터넷 원서접수
http://ipsi.kgcr.ac.kr
www.jinhakapply.com
www.uwayapply.com

상담전화
080-330-7300
TEL : 061-330-7321~7
FAX : 061-330-7322

 전문인육성 교육중점대학
고구려대학
KOGURYEO COLLEGE

520-713 전남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 837-8